

발바닥의 굳은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설 수는 없는가?

글 | 고명철

김훈의 장편 소설 《개》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들어 서기 시작했다. 김훈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후 곧바로 출간된 김훈의 《개》는 잇따른 출세작 《칼의 노래》와 《현의 노래》의 뒤를 이어 김훈 문학 마니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조만간 개최될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주빈국관에 전시될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이 선정되었는데, 문학 37종 중 김훈의 《개》가 선정되었다고 하니, 《개》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베스트셀러에 해당되는 작품이 그렇듯, 그 작품에 대한 본격적 비평이 제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의 각종 홍보와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아래 해당 작품에 대한 미학적 평가가 실종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남은 것은 작가의 지명도와 베스트셀러에 속했다는 유명세뿐이지, 그 작품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령, 김훈의 《개》만 해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의 경우 예전의 작품들과 현격히 다르다며, 마

치 김훈 문학의 새로운 '물건'인 양 추켜세우기 급급하다. 인간이 아닌 개에 주목하여, 개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인간의 삶과 현실에 대한 김훈 특유의 생의 감각이 빼어나게 형상화된 작품이라는 것을 동어반복적으로 늘어놓을 따름이다.

물론 이번 장편 소설 《개》가 그동안 김훈 문학에 낮익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김훈 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는 문체의 매혹이 이번 소설에서는 전면에서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그의 두 출세작(《칼의 노래》와 《현의 노래》)이 역사를 무대로 종래의 역사소설과 다른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면, 이번 장편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소설이 김훈 문학의 큰 흐름 속에서 튕겨져 나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개》에서도 김훈 특유의 감각적 글쓰기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확보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 장편 소설에서는 개의 후각에 작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개의 후각은 다른 동물보다 발달되어 있기에, 개는 후각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분별해 낸다. 김훈은 이러한 개의 후각을 통해 개의 존재 가치를 보증한다. "내 공부는 오직 내 몸뚱이로 비벼서 알아내는 것이었다"(75쪽)라는 개의 전언은, 개가 세계를 만나는 방식이면서 세계의 진실을 온몸으로 감각해 내고자 하는 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 이는 김훈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적 원리이자 미학적 태도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날지를 못한다. 나는 개이므로 고향이 있고, 주인이 있고,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의 집에서 잔다. 나는 개이므로 네 발바닥으로 땅바닥을 박차고 달리고, 땅 위의 모든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바닷가 마을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곳이 나의 고향이며, 사람의 냄새가 나는 모든 주인들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 큰 개였고, 젊고 힘센 수놈이었다."(74쪽)

"땅 위의 모든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이 개의 숙명이다.

●이 글을 쓴 고명철은 문학평론가. 현재 광운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쓰다의 정치학》 《비평의 잉글랜드》 《1970년대의 유신체제를 넘는 민족문학론》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공저) 《한국현대시문학사》(공저) 《한국소설 위기의 열두 가지 시각》(공저) 등이 있다. '21세기를 여는 젊은 작가들' 대표로 현재 반년간 《비평과 전망》 및 계간지 《리토피아》의 편집위원이다.

그 온갖 냄새를 맡으며 개는 자신의 존재를 보증받는다. 그리고 개는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이유에 의해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한다. 개의 삶은 불박이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의 주인공, '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진돗개는 수몰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바닷가 마을을 자신의 또 다른 고향으로 간주하며 살아간다.

김훈의 《개》는 이 '보리'라는 진돗개의 시선을 통해 마치 성인용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설은 소설이되, 성인용 동화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할까. 하여 우리는 '보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와 개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반추하게 된다. 가령, '보리'가 자신이 태어난 수몰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에 부대끼며 살아온 자신의 발바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상념은, 개의 삶에 빚낸 인간의 그것에 대한 작가의 성찰적 시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무 그늘 밑에 었드려서 나는 바위가 돌아날 수 없는 내 발바닥의 굳은살을 훑었다.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굳은살이었다. 나는 개이므로 내 몸무게를 내가 끌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다리의 힘을 모아 땅바닥을 박찰 때, 내 발바닥 굳은살은 내 몸무게를 땅바닥에 통겨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 그래서 내 발바닥 굳은살은 내가 살아온 모든 고향의 흔적과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굳어져 갔다. 이제는 물에 잠겨버린 내 어렸을 적 고향의 땅바닥과 숲속과 논두렁과 진흙탕의 기억까지도 내 발바닥 굳은살 속에는 저장되어 있다.”(101쪽)

하지만, 김훈의 소설에서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게 있다. '보리'의 발바닥 굳은살과 예민한 후각을 통해 우리들 삶의 생의 감각을 섬세히 포착해 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나 역시 이견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보리'의 온몸에 새겨진 삶의 역경과 흔적을 주체의 감각 차원으로 귀속시킨 나머지 그러한 감각에 수반되는 '보리'의 타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말하자면 《개》는 '보리'의 개별적 감각이 갖는 개별적 진실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보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들('악돌이'라는 수캐, '흰순이'이라는 암캐 및 '보리'의 주인들)은 '보리'의 존재 가치를 보증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는 이미 결정지어져 있다. 그 누구도 세계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보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이웃 마을 암캐 흰순이를 만나러 가다가, 악돌이라는 자신보다 힘센 수캐를 만나 싸운다. 그런데 돼지 콜레라가 창궐하여 돼지 농가가 망하자 돼지 농가의 개였던 악돌이마저 사라지고, 흰순이는 보신탄감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보리'의 투쟁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이었던 악돌이와 흰순이의 존재는 이렇게 허망하게 소멸한다. 악돌이와 흰순이는 '보리'가 어쩔 수 없는 세계의 현실 논리에 의해 지배당할 뿐이다. 세계는 그렇게 이미 결정지어져 있다. '보리'의 태어

난 고향이 수몰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인정하는 것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유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를 해석하고 대면하는 태도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개》보다 앞서 발표한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번 작품에서도 그렇고, 김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전자의 입장이다. 때문에 그가 《개》의 말미에서 보이는 “어디로 가든, 내 발바닥의 굳은살이 그 땅을 밟을 것이고 나는 굳은살의 탄력으로 땅 위를 달리게 될 것이다”(231쪽)라는 에피고넨은, 현실의 고통을 견디는 삶의 미학으로 비쳐지는 듯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현실의 고통을 견디는 미학으로 위장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위악으로 방어하려는 데 불과할 뿐이다. 여기서 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의 발바닥의 굳은살은 세계의 고통을 견디기도 하지만, 그러한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젊고 힘센 수놈”(74쪽)만이 가능한 게 아니다. 세계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비판적 태도를 갖고 세계의 온갖 냄새를 맡으며 발바닥의 굳은살로 박찰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개의 발바닥이 지닌 견디는 미학, 그 진정성이다. ■

